

초기성문암의 치료 성적 및 재발시 보존적 구제술의 적용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
정한신* · 최중운 · 김태욱 · 백정환 · 손영익

목적 : 초기성문암은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으나 재발한 경우 치료는 근치에 중점을 둔 후두전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문암의 치료 방법에 따른 성적과 재발된 경우 보존적 구제술을 적용한 후의 결과 및 그 효용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.

방법 : 1995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초기성문암(Tis, T1N0M0, T2N0M0)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로 1년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7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일차치료로써 방사선 치료와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성별, 연령, 일차치료방법, 재발율, 구제수술 방법 및 구제술 이후의 합병증, 재발, 치료성적 등을 분석하였다.

결과 : 초기성문암의 일차 치료로 24예에서 보존적 수술을, 49예에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평균 관찰 기간은 각각 39.5, 37.1개월이었다. 일차치료로 보존적 수술

을 시행한 경우 재발은 2예(8%)였고 일차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 재발은 7예(14.2%), 잔존암이 남은 경우는 3예(6.1%)였다. 일차치료후 재발의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다. 재발은 8예에서 원발부위에서 발생하였고 re-staging시 T2N0M0가 가장 많았다. 구제 후 두보존수술로 4예에서 상윤상후두부분절제술, 2예에서 반측후두절제술, 2예에서 전외측후두부분절제술, 2예에서 레이저소작술을 사용하였으며 후두 기능 보존이 가능하였고 심각한 합병증없이 근치가 가능하였으며 추적관찰 기간중 구제술후 재발은 없었다.

결론 : 일차치료시 재발율은 15.1%였고 방사선치료시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. 재발의 조기 발견시 보존적 구제술은 우수한 종양학적 결과와 기능 보존이 가능하여 유용한 술식으로 생각된다.